‘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에 대한 일고찰

이 영 경

1. 머리말
2. 중세국어의 ‘식브다’ 구문의 유형
3. ‘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
1) ‘-고 식브-’ 구성의 성립
2) ‘-과뎌 시브-’ 구성의 출현과 ‘-으면 시브-’ 구성의 성립
3) ‘식버ᄒᆞ-’ 구성과 심리형용사적 성격
4) ‘-고라쟈 식브-’ 구성과 그 의미
5) ‘듯 시브-’ 구성의 발달
6) 축약형 ‘-고프-’와 문법화된 형태 ‘-다시피’의 성립
4. 결 론

1. 머리말

국어에서 ‘싶다’는 매우 특별한 어휘이다. 보조 용언으로서 대단히 다양한 보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이한 통사 구조와 의미로 인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보조 용언이지만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 형용사와 의미뿐 아니라 형태·통사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싶다’는 ‘희망’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된다. 연결어미 ‘-고’와의 결합형은 전자의 의미를, ‘-ㄴ가’를 비롯한 여러 종결어미와의 결합형은 후자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희망’ 대신 ‘願望’ 또는 ‘욕망’, ‘욕구’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고 ‘추측’ 대신 ‘추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싶다’의 의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최현배(1937) 이래로 대체로 후속 논의에 수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희망’과 ‘추측’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공통된 인식 위에서 세부적으로 김홍수(1983)에서는 이 두 의미가 어휘 요소 ‘싶다’의 추상적 의미인 ‘느끼다’ 또는 ‘느끼-PASSIVE-다’의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선행 통사 구조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차현실(1984)에서는 '싶다'를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갖는 주관적 심리 작용 내지는 인식 양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한편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고 싶다'의 경우 '싶다'가 보여주는 이른바 '격 교체'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격 교체의 원인이나 통사적 제약, 심리 형용사와의 통사적 유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며,[1] '-기 쉽다' 구문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2] 한편 종결어미와 통합되는 '싶다'의 경우 엄정호(1990)에서 언급된 이른바 'SEA (Sentence Ending Auxiliary) 구문'으로서의 통사적 특성과, 같은 SEA에 속하는 '보다', '하다'와의 통사 구조 및 의미 비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렇듯 '싶다'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 성과는 적잖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나, '식브다'라는 역사적인 소급형이 존재하여 그것이 중세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통사 구조와 의미를 형성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김흥수(1983), 손세모돌(1995, 1996) 등에서 '싶다' 구문의 사적 변천 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주로 '-고 싶다'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싶다'와 같이 특이한 의미·기능을 보여주는 대상이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에 대한 공시적 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 싶다'에서의 '싶다'가 가지는 '희망'의 의미는 '-고'의 형태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에 본고는 '싶다' 구문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을 통하여 '싶다' 구문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싶다'의 의미적 측면보다는 형태·통사적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싶다' 구문은 화자의 심리 표현과 관련된다는 의미적 특성상 公的인 자료

1) 격 교체를 포함한 '싶다' 구문의 통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엄정호(2003) 등을 비롯한 최근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 싶다' 구문의 격 교체를 '-기 쉽다' 구문의 그것과 동궤의 것으로 파악하고 명사구 이동을 상정하여 설명하고자 한 논의로는 김영희(1989), 김선웅(1996)이 있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보다 私的인 구어 자료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는 심리 형용사가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경언해가 주 자료인 15세기에서는 그다지 많은 예를 볼 수 없지만 이후의 언간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구어 자료에서 많은 예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의 생생한 언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중세국어의 '식브다' 구문의 유형

현대국어에서 '싶다'는 매우 다양한 보문 형태를 가진 보조 용언이다. 보문 형태가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하다'와 같이 연결어미 통합형, 종결어미 통합형, 의존명사 통합형을 모두 가지고 있다.[3] 현대국어의 '싶다' 구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유형
연결어미 통합형: -고 싶다, -면 싶다, -거니 싶다, -려니 싶다
종결어미 통합형: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구나 싶다, -자 싶다, -라 싶다 …
의존명사 통합형: 듯 싶다, 성 싶다

위의 (1)에서 볼 수 있듯이 '싶다'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의존명사 통합형을 두루 보여주지만 그 구문의 다양성은 특히 종결어미 통합형에서 두드러진다.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청유형, 명령형 등 거의 모든 종결어미를 앞세울 수 있음이 확인된다.

'싶다'는 화자의 심리나 생각 즉 '내적 사유'를 표현하는 것으로[4] '싶다'의 보문은 그 사유의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종결어미를 통합한 완전한 문장으로 나타날 때 직접화법적인 문장보다 간접화법적인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

3) '하다'의 경우는 (1)의 '싶다' 구문에서의 종결어미 통합형 및 의존명사 통합형이 거의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아/어, -어야, -려(고), -고자, -면, -거니, -려니, -곤' 등과 인용보문소, '-기 + 보조사' 구성과의 통합이 가능하다. 이선웅(1995: 39) 참조.
4) '내적 사유'는 이현희(1994: 294)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반적이다. ‘싶다’의 보문이 의문문인 경우 ‘-ㄴ가/ㄹ까 싶다’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ㄴ가/ㄹ까’는 주로 간접의문과 관련되는 의문어미이다. 이렇게 보면 직접화법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청유형, 명령형 어미는 ‘싶다’의 보문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청유와 명령은 모두 본질적으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차현실(1984: 321)에서 ‘싶다’ 보문의 종결어미로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싶다’의 의미 자질이 [-대외적]이기 때문이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외적]이라는 것은 결국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싶다’의 의미 자질이 [-대외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 예를 보면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그 보문의 종결어미로 올 수 없다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 보자 싶었다.
(3) 이번엔 네가 한 번 당해 봐라 싶어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청유형 어미가 통합된 (2)의 예는 그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자 싶다’ 구문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3)의 명령형 어미 통합형도 필자의 직관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될 대로 돼라 싶다’와 같은 예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 통합형도 ‘싶다’ 구문의 보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청유나 명령은 모두 화자의 생각 즉 내적 사유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경우의 청유와 명령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과 같은 것으로서 앞서 언급된 [-대외적]이라는 ‘싶다’의 의미 자질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애들아 우리 지금 가자 싶어서 …’, ‘*영희가(네가) 가라 싶어서 …’와 같이 명백하게 청자가 상정되는 청유나 명령은 ‘싶다’와의 통합에 강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싶다’의 보문이 의문문을 허용하지만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구어적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의문형 어미 ‘-니’는 ‘싶다’와의 통합에 제약을 받는 것과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상통하는 것이다.[5)]

결국 현대국어에서 '싶다'의 보문은 청자를 상정하지만 않는다면 문체법의 제약 없이 거의 모든 종결어미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여기서의 종결어미는 공손법 등급에서 '하라체'에 해당하는 것만 올 수 있다. 이 또한 '싶다'의 보문이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현대국어의 '싶다' 구문이 매우 다양한 보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싶다'의 소급형인 중세국어의 '식브다' 구문의 유형은 어떠하였을까? 현대국어와 같이 다양한 구문 유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중세국어에서의 '식브다' 구문의 유형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6)]

먼저 연결어미가 통합된 '식브-' 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4)ㄱ. 슬퍼 아니 먹논 디 아니라 먹고져 식브디 아니ᄒᆞ니 당다이 病이로소이다 (삼강행실도 烈35)
ㄴ. 지조ᄅᆞᆯ ᄇᆡ화나니 나간 저기면 다시 보려니 식브댜녀 ᄆᆡ양 누ᄂᆡ 볼이고 닛디 몯ᄒᆞ니 (순천김씨간찰 135:3)

예 (4ㄱ)은 '-고져'를 선접한 '-고져 식브-' 구성으로 이는 '願望'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고 싶-' 구성의 소급형이다. (4ㄴ)은 '-려니'가 통합된 '-려니 식브-' 구성이다. '추측'을 나타내는 현대국어 '-려니 싶-'의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면'이 통합된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이 구성은 근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종결어미가 통합된 '식브-' 구문의 예이다.

(5)ㄱ. 하 貴ᄒᆞ실씨 하ᄂᆞᆯ로셔 나신가 식브건마ᄅᆞᆫ 그리 아니라 아랫 因緣 닷고ᄆᆞ

5) '-니'만큼은 아니지만 의문형 어미 '-냐'도 '싶다'와의 통합이 잘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많이 배운 사람은 다 그렇게 하냐 싶어서 …', '*그가 왜 이렇게 늦냐 싶었다'와 같은 예는 우리의 직관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며 모두 '-냐'보다는 '-나'로 바꾸었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6) '식브다'는 16세기에 들면 문헌에 따라 '십브다', '시브다', '싣브다' 등의 표기로도 나타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로 ᄃᆞ외시다 ᄒᆞ논 마리라 (월인석보 4:33b-34a)
ㄴ. 미욘 것과 안존 거싀 비츨 자볼가 식브도소니 軒楹에셔 양ᄌᆞ를 어루 브를가 식브도다 (두시언해 16:46a)
ㄷ. 다시곰 다 닛디 몯ᄒᆞ니 내 울오 므ᄉᆞᄆᆞ라 오거뇨 식베라 (순천김씨간찰 65:18)
ㄹ. 싱워ᄂᆞᆯ 주구려 원망 아니히여 견듸노라마ᄂᆞᆫ 하 가슴 답답ᄒᆞᆯ 제사 그저 모ᄅᆞ면 이리 셜오랴 식베라 (순천김씨간찰 41:9)
ㅁ. 네 모시 하 투긔도 요동 업ᄉᆞ니 내 ᄆᆞ슴도 역시미 나니 두어라 어쩌리 시브니 (순천김씨간찰 83:9)

(5)는 종결어미와 통합된 '식브-' 구문 가운데 가장 많은 예를 보이는 의문형 어미 통합 구문으로, (5ㄱ)은 '-ㄴ가', (5ㄴ)은 '-ㄹ가', (5ㄷ)은 '-뇨', (5ㄹ)은 '-랴', (5ㅁ)은 '-리'가 통합된 예이다. 그런데 15세기에는 (5ㄱ, ㄴ)과 같은 '-ㄴ가', '-ㄹ가' 통합의 예만 나타나다가 16세기 언간 자료에서 '-뇨', '-랴', '-리' 등이 통합된 예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5ㄷ-ㅁ)의 예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그 예는 많지 않으며, 이들도 간접의문의 형식은 아니지만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간접화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청자가 상정되어야 하는 '-니' 의문문이 '싶-'의 보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중세국어의 경우에도 2인칭의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ㄴ다' 의문문은 '식브-'의 보문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결국 '식브-'의 내용으로서의 의문은 원칙적으로 '-ㄴ가', '-ㄹ가'가 통합되는 간접의문문으로 표현되다가 점차 다른 어미와의 통합도 허용되게 되었지만 이 경우도 청자의 상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화용론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6)ㄱ. 져제 죵긔 뼈딜이 식브거든 져고맛 대항애 죠히 녀허 술오 썰리 대핤 부리를 졋 우희 어퍼 모딘 긔운을 다 드라 썰에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구급간이방 7:71b)
ㄴ. 엇디ᄒᆞᆫ 이린고 ᄀᆞ이업도다 식브니 엇디 파직도 아니ᄒᆞ거니 애ᄃᆞ래라 (순천김씨간찰 99:3-4)
ㄷ. ᄉᆞ〃 그 ᄌᆞ시긔 이를 ᄌᆞ시 긔벼를 드ᄅᆞ니 내 안이 셜오나마나 제 죽고라쟈 식베라 (순천김씨간찰 68:4)

(6)은 '식브-'의 보문으로 평서문이 온 예이다. (6ㄱ)에서 '뼈딜이'는 '뼈디리'의 과도 분철형으로 '식브-'의 보문에 종결어미 '-리'가 통합된 예이다. 문맥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을 고려할 때 '젓에 난 종기 터지겠다 싶거든'의 의미로 해석된다. (6ㄴ)은 '식브-'의 보문에 감탄형 '-도다'가 통합된 예로, 현대국어의 '-구나 싶-' 구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6ㄷ)은 매우 특이한 예로 '-고라쟈'라는 형태가 '식브-'의 보문에 통합되어 있다. '-고라쟈'는 일반적으로 '願望'의 의미를 가지는 '-고져'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는 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종결어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한 중세국어 '식브-' 구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중세국어 '식브다' 구문의 유형
연결어미 통합형: -고져 식브다, -려니 식브다
종결어미 통합형: -도다 식브다, -리[1] 식브다, -고라쟈 식브다, -ㄴ가 식브다, -ㄹ가 식브다, -뇨 식브다, -랴 식브다, -리[2] 식브다[7)]

위의 (7)에서 보듯이 중세국어 '식브다' 구문의 유형은 현대국어의 '싶다' 구문만큼 다양하지 않다. 우선 의존명사 통합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도 현대국어 '듯'의 소급형인 '듯'이 있었으나 '듯 식브다'와 같은 구성은 중세에는 보이지 않고 근대에 가서야 나타난다. 또한 종결어미 통합형의 경우 현대국어와는 달리 청유형, 명령형 어미가 통합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중세국어의 '식브다' 구문은 현대국어에 비해 보문의 형식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종결어미 통합형의 경우 간접화법적인 성격을 가진 보문만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보문의 형식이 다양해져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화용론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문체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결어미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

1) '-고 식브-' 구성의 성립

잘 알려져 있다시피 願望 표현의 '-고져 식브-' 구성은 근대로 오면서 '-져'

7) '-리[1]'은 평서형, '-리[2]'는 의문형에 해당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가 탈락된 '-고 시브-' 구성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문헌상으로 '-고져 식브-' 구성의 '-고져'가 '-고'로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중엽의 『捷解新語』부터이며 18세기가 되면 이 환경에서 '-고져'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고'만 나타나게 된다.[8] 다음 예에서 '-고 시브-' 구성의 등장이 확인된다.

(8)ㄱ. 불긔예도 이시려니와 아직 수이 알고 시브오니 셔울은 어닉 ᄯᅴ 떠나셔 여긔ᄂᆞᆫ 어닉 ᄯᅴ 브트시리라 니ᄅᆞ옵ᄂᆞᆫ고 (첩해신어 5:11a-b)
ㄴ. 졀역고셩의 비록 강개ᄒᆞᆫ ᄠᅳ디 ᄀᆞᆫ졀ᄒᆞ나 거가니 향ᄒᆞ니 엇디 도라오고 시븐 념녀를 금ᄒᆞ리오 (선조행장 62)
ㄷ. 국텽을 본부로 옴겨 쥐고 노코 펴고 주리기를 오직 뜻에 ᄒᆞ고 시븐대로 ᄒᆞ며 (천의소감언해 2:67a)
ㄹ. ᄯᅩᄒᆞᆫ 경상을 보고 시부디 아니ᄒᆞ야 이제ᄭᅡ지 허티 아니ᄒᆞ엿더니 (속명의록언해 2:23a-b)

17, 18세기의 예들인 위 (8)에서 '알고 시브-', '도라오고 시브-', 'ᄒᆞ고 시브-', '보고 시브-'는 '-고져'의 '-져'가 탈락된 현대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현대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 연결어미 '-고져'는 이 시기에 여전히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져'가 선행하여 역시 願望의 의미를 표현하는 '너기-, 願ᄒᆞ-, ᄇᆞ라-, ᄉᆞ랑ᄒᆞ-' 등의 동사 앞에서는 '-져'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데 유독 '시브-'의 앞에서만 '-져'가 탈락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져 시브-'에서 '-져'의 탈락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져'와 '식브-'를 각각 所望과 願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의미의 충돌로 인해 잉여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고져 식브-' 구성에서의 '願望'의 의미는 '식브-'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행 요소 '-고져'에 의한 것이며,[9] 여기서의 '식브-'도 '-ㄴ가' 등의 다른 종결어미 통합형 구문에서

8)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식브-(>십프-, 시프-)' 앞에 '-고져'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의 두 예뿐이다.
(ㄱ) 그 죄 쇽히 즁치ᄒᆞ야 후일을 증조 보고ᄌᆞ 십프나 <현씨양웅쌍린기 203>
(ㄴ) 녀시 이를 보미 복통이 발ᄒᆞ여 경긱의 닉ᄃᆞ라 즛치고져 시프나 <완월회맹연 5a>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고져 식브-'에서의 '식브-'만이 원망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고져'에서 所望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고'와 역시 소망의 의미와 관련되는 '져'의 의미 중복에 대한 잉여 요소의 생략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고져'가 공시적으로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라 하더라도, '-과뎌', '-곳', '-괫고', '-긧고', '-고라', '-고라쟈' 등 중세국어의 많은 소망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고'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이른 시기의 향가나 고려가요에서 소망 표현의 선어말어미 '-고-'가 확인되는 것을 고려할 때 '고'가 독자적으로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뚜렷이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져' 역시 '-아지라', '-아져', '-아지이다' 등의 소망 표현에 공통되는 형태인 '지'를 가지고 있어 결국 '-고져'는 소망 표현의 형태가 중복되어 형성된 어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망 표현의 '-고져'에서 '져'는 잉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식브-' 구성에서 그것이 탈락하더라도 '소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다음과 같이 소망 표현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어미 '-고라(>고려)'가 근대국어 시기에 '라(>려)'가 탈락한 '-고'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는 점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예는 공교롭게도 '-고져'에서의 '-져'의 탈락과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9)ㄱ. 사발 잇거든 ᄒᆞ나 다고 (노걸대언해 上:38a)(이승희 2004: 7에서 재인용)
ㄴ. 曹操ㅣ 니로되 글 다고 보쟈 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글을 드려주다(삼역총해 6:17b)(이승희 2004: 7에서 재인용)

예 (9)는 모두 불완전동사 '달-'의 예이긴 하지만 '다고려'가 말음절 '-려'가 탈락된 '다고'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려'가 탈락되었지만 '고'에 의

9) 이와 같은 논의는 김흥수(1983), 차현실(1984) 등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손세모돌(1995), 호광수(200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 또한 적어도 중세국어에서는 '식브-'가 그 자체로 원망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이지만, 여기서는 '식브-'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 기대기로 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해 '소망' 내지 '請願'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이러한 '고'의 의미가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물론 이는 종결어미의 예라는 점이 '-고져'와 차이가 있지만 의미상으로 유사한 어미에서 말음절 탈락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고져 식브-(>시브)' 구성의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서의 '-고져'는 '져' 탈락을 입지 않았는데 '-고져 식브(>시브)-' 구성에서만 '져' 탈락이 일어난 이유는 여전히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근대국어 이후 보조 용언 구성에서 선행 용언의 어미가 '-어'나 '-고'로 통일되는 것에 이끌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경우 보조 용언 구성에서 선행 용언의 어미가 주로 '-어'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근대국어에서는 '-고'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10] '-고져 식브-'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경향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두 구성에서의 '고'의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보조 용언 구성으로서의 형식은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져 식브-' 구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져 너기-/願ᄒᆞ-/ᄇᆞ라-/ᄉᆞ랑ᄒᆞ-' 등의 구문에서는 왜 '-고져'의 '져'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식브-'는 현대와 마찬가지로 중세에서도 보조 용언으로만 기능함으로써 '-고'가 통합되어도 선행 용언과 대등하게 나열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음에 반해, 본 용언으로도 사용되는 이들 동사 앞에서는 '-져'의 탈락이 일어날 경우 나열의 연결어미 '-고'와 형식이 같아져서 의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식브-' 구문에서만 '-져'의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9)에서의 '-고라'의 '라' 역시 그것이 탈락해도 다른 어미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탈락이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 식브-' 구성의 성립은 근대국어 이후 보조 용언 구성에서 선행 용언의 어미가 '-어'나 '-고'로 통일되는 것에 유추되어 소망 표현의 형태가 중복된 어미 '-고져'에서 잉여적 요소인 '져'가 탈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0) 이에 대해서는 손세모돌(1995, 1996)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2) '-과뎌 시브-' 구성의 출현과 '-으면 시브-' 구성의 성립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근대국어에 오면 '-고져' 대신 '-과뎌/과져'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고져'는 상위문의 주체(所望主)와 하위문의 주체(行爲主)가 일치할 때 쓰이고 '-과뎌'는 상위문의 주체와 하위문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인다. 물론 근대국어에 와서는 이와 같은 엄격한 용법상의 구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음 예는 중세국어의 용법에 따르면 정확히 '-과뎌'가 쓰일 환경이다.

(10)ㄱ. 이 도적놈은 수이 죽과뎌 ᄒᆞ더니 도로혀 수이 무ᄉᆞ히 나오과뎌 시브다 (병자일기 208)
ㄴ. 子ㅣ ᄀᆞᄅᆞ샤ᄃᆡ 君子ᄂᆞᆫ 言의 訥ᄒᆞ고 行의 敏과져 시부니라 (논어율곡언새 1:40a)

예 (10ㄱ)은 '이 도적놈은 쉽게 죽었으면 하였는데 도리어 쉽게 무사히 나왔으면 싶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싶다'의 주체인 소망주는 화자(南平 曺氏)이고 '-과뎌'가 통합된 '죽-', '나오-'의 주체인 행위주는 '도적놈'으로 상위문의 주체와 하위문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과뎌'가 요구되는 환경이다. (10ㄴ) 역시 '… 군자는 言에 訥하고 行에 敏하였으면 싶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敏ᄒᆞ-'의 주체는 '君子'이지만 '시부-'의 주체는 화자 즉 문두의 '子'이다. 중세국어에서의 '-과뎌'의 용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뎌(>과져) 시브-'의 예는 위의 두 예가 유일하다. 대체로 願望의 의미를 가지는 '싶다' 구문은 소망주와 행위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가 많지 않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세국어에서 '-과뎌 식브-' 형식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어떤 형식이 문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같은 용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문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어사 연구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과뎌 식브-' 구성이 이처럼 근대국어에 나타나고 있다면 중세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국어의 경우도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의미상 '사유'와 관련되며 비슷한 구문 형식을 보여주는 'ᄉᆞ랑ᄒᆞ다' 구문이 '사ᄅᆞ문 戈鋌을 그치시과뎌 ᄉᆞ랑ᄒᆞ놋다 (두시초20:4)'와 같이'-과뎌' 통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11]

한편 연결어미 '-과뎌(>과져)'의 소멸과 함께 이와 같은 구성은 사라지고 다른 형식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현대국어의 '-으면 싶-' 구성을 떠올리게 된다. 이 '-과뎌(>과져) 시브-' 구성은 결국 행위주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소망주가 바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으면 싶-' 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12] 다만 현대국어의 '-으면 싶-' 구성은 '-과뎌(>과져) 시브-' 구성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방이 더 밝았으면 싶다'에서와 같이 의지를 가진 행위주가 아닌 무정물이 하위문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나도 좀 쉬었으면 싶다.'에서처럼 소망주(화자)와 행위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고 싶-'보다는 좀더 완곡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현대어적인 '-으면 시브-'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세기 이후의 자료로 생각되는 『한중록』에서 두 예가 확인된다.

(11)ㄱ. 이제 싱각ᄒᆞ면 신묘의 션친의 화를 닙으셔도 후겸을 사긔디 마더면 시브ᄃᆡ 사ᄅᆞᆷ의 ᄌᆞ뎨가 되어 목젼의 부형의 참화를 보고 엇디 ᄎᆞ마 구치 아니리오 (한중록 420)

ㄴ. 그 일이 더욱 갑갑 셜운 것시 우히셔븟터 츈방관ᄉᆞ지라도 병환을 어이 업시 용셔ᄒᆞᆯ 도리가 잇게 초박ᄒᆞᆫ 띄는 병환증을 ᄂᆞᆷ이 다 알게 나타나게 ᄒᆞ시면 시브더니라 (한중록 150)

위의 (11)에서 행위주는 '닙으셔도', 'ᄒᆞ시면'에서처럼 그 서술어에 모두 '-시-'가 통합되어 있는 존귀한 대상이며 따라서 화자인 소망주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라면 '-과뎌'가 쓰일 환경이지만 '-면'으로 나타남으

11) 한편으로 '-과뎌'가 소멸함에 따라 '-과뎌'의 확실한 의미·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전의 '-고져'와 혼동한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12) 정확하게는 '-었으면 싶-'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그가 빨리 왔으면 싶었다.'와 같은 예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로써 현대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3) '식버ᄒᆞ-' 구성과 심리형용사적 성격

'-고 싶다' 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리 형용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체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는 의미적인 공통점은 물론 통사적으로도 주격 중출 구성을 보인다든지 인칭 제약이 적용된다든지 '-어하다'의 연결에 의해 대응되는 동사 구문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심리 형용사가 '-어하다' 연결에 의해 대응되는 동사 구문을 구성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리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진 '싶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중세국어에 현대어적인 '심리 형용사 + 어ᄒᆞ다' 구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 '심리 동사 +어ᄒᆞ다' 구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점차로 '심리 형용사 + 어ᄒᆞ다' 구성이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5세기에 몇몇 형용사에서 싹을 보이기 시작하여 16세기에 이르면 '슬프-, 두립-, 둏-, 알ᄑᆞ-, ᄀᆞ랍-' 등의 형용사가 '-어ᄒᆞ다' 연결 구성을 보이고 17세기 이후에는 보다 일반화된다.[13)]

이와 같은 심리 형용사의 '-어ᄒᆞ다' 구성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싶다'도 '-어ᄒᆞ다' 연결 구성을 보인다. '식버ᄒᆞ-(>시버ᄒᆞ-)'의 예는 '심리 형용사 + 어ᄒᆞ다' 구성이 일반화되는 17세기에 문헌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2)ㄱ. 나ᄂᆞᆫ 편히 이쇼ᄃᆡ 대임의 병이 ᄒᆞ린 듯 호ᄃᆡ 수이 쾌치 아니ᄒᆞ니 여러 번 침을 마쳐야 ᄒᆞᆯ 거시니 오래 이실가 식버ᄒᆞ뇌 (현풍곽씨언간 108-6)

ㄴ. 대변의 담이 만히 난가 시브니 문리 모ᄅᆞᄂᆞᆫ ᄆᆞ음의 됴ᄒᆞᆯ ᄃᆞᆺ 시버ᄒᆞ더니 의관도 난 이리 됴타 ᄒᆞ더라 ᄒᆞ니 더옥 깃브다 (언간 92, 김일근-언간의연구)

ㄷ. 이 무상ᄒᆞᆫ ᄌᆞ식아 너의 모친긔 효성은 긔특거니와 싱모친긔 그리 ᄆᆡ야 ᄒᆞ야 즐기시ᄂᆞᆫ ᄯᆞᆺ이 듕ᄒᆞ신들 존젼의 ᄉᆞ졍을 발치 못ᄒᆞ시나 손이나 아니만지고 시버ᄒᆞ시랴 (완월회맹연 15a)

ㄹ. 너는 김 신부와 ᄀᆞᆺ히 간셥ᄒᆞᆫ 일이 업ᄂᆞᆫ디 엇지 이러ᄐᆞ시 죽고 시버ᄒᆞᄂᆞ냐 (경향보감 4:392)

---

13) 심리 형용사의 '-어ᄒᆞ다' 대응 구문 구성 양상에 대해서는 장경준(1998)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고, 졸고(2005)에서도 '심리 형용사 + 어ᄒᆞ다' 구성의 발달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그런데 현대국어의 경우 '-어하다'가 '원망' 내지 '희망'의 '-고 싶다' 구성에만 연결될 수 있는 데 반해 위의 (12)에서는 '-ㄹ가 식브-'와 '듯 시브-' 구성에 '-어ᄒᆞ-'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어ᄒᆞ-'의 의미가 '동작성의 강화'와 관련됨을 고려할 때(장경준, 1998: 34-46) 이는 '추측'에 동작성을 부여한 특이한 예가 된다. 다만 첫 번째 예는 '-ㄹ가 식브-'가 '추측'보다는 '마음속에 앞의 보문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작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예인 (12ㄷ, ㄹ)에서 현대어적인 '-고 시버ᄒᆞ-'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심리 형용사처럼 주격 중출 구성을 보이는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른바 '격 교체'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싶다' 구성의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분이다.

(13) 그ᄃᆡ는 일ᄐᆡᆨ디상의 편히 잇는 가뷔 므어시 보고 시버 그ᄃᆡ도록 밋친 거조를 ᄒᆞ여 남의 우음을 취ᄒᆞᄂᆞ뇨 <명주보월빙 103>

예 (13)에서 '시브-(<식브-)'의 선행 용언 '보-'는 대격을 지배하는 동사인데 앞의 명사구 '므엇'에 대격 조사 대신 주격 '이'가 통합되어 있다. 예는 극히 드물지만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미 이와 같은 구성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라쟈 식브-' 구성과 그 의미

'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 과정에서 매우 흥미를 끄는 구성은 '-고라쟈 식브-' 구성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4)ㄱ. 내 ᄌᆞ시기 주그면 이 슈요글 아니 볼 거시니 ᄌᆞ시기 죽디 마오 제 죽고라쟈 식브고 (순천김씨간찰 34:1)
ㄴ. 그리 ᄃᆞᆫ〃ᄐᆞᆫ ᄌᆞ시글 그리 ᄆᆡᆼᄀᆞ니 ᄉᆞ〃 그 ᄌᆞ시긔 이ᄅᆞᆯ ᄌᆞ시 긔벼ᄅᆞᆯ ᄃᆞᄅᆞ니 내 안이 셜오나마나 제 죽고라쟈 식베라 (순천김씨간찰 68:3)

예 (14)는 '식브-'의 선행 형식으로 '-고져(>고쟈)'가 아닌 '-고라쟈'라는 특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이한 형식이 나타나는 예로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만 '죽고라쟈'의 두 용례를 보인다. 이들 예에서 '죽고라쟈 식브-'는 '죽었으면 좋겠다 싶-'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고라쟈'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에서도 '-고쟈'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고라쟈'는 다음과 같이 '식브-' 구문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확인되므로 이들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그 형태와 의미의 규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15)ㄱ. ᄉᆞ시ᄂᆞᆫ 팔지니 내 팔지 이리 사오나이 되여 잇거니 쇽져리랴 출히 궁히 삼긴 거시 벼ᄉᆞ리나 말고라쟈 (순천김씨간찰 94:8-9)
ㄴ. 디평딕 병환은 ᄒᆞ렷다 ᄒᆞ나 ᄌᆞ셔히 몰라 답〃ᄒᆞ더니 의심된 일도 업고 병도 다 ᄒᆞ렷다 ᄒᆞ니 다 깃브다마ᄂᆞᆫ 낙터ᄒᆞᆫ 일과 태졍의 일이 아마도 가디록 애둛고 잔잉 ᄠᆞᆫᄒᆞ니 다 무ᄉᆞᄒᆞ고라쟈 (언간 91, 김일근-언간의 연구)
ㄷ. 수루록 소사 올나 져 구름에 안고라쟈 (악학습령 370)
ㄹ. 어제런지 그제런지 속졀업슨 밤기던지 그날 밤 버혀내여 오ᄂᆞᆯ 밤 닛고라져 (고금가곡 190)
ㅁ. 졋 건너 흰 옷 닙은 사ᄅᆞᆷ ᄌᆞᆫ 뭡고도 양믜왜라 쟈근 돌ᄃᆞ리 건너 큰돌ᄃᆞ리 너머 밥쒸여 간가 ᄀᆞᄅᆞ 쒸여 가ᄂᆞᆫ고 애고애고 내 書房 삼고라쟈 (청구영언 517)

위 (14)의 '식브-'의 예에서는 '-고라쟈'가 연결어미인지 종결어미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예 (15)는 그것이 종결어미임을 입증해 준다. 그 의미는 각각 '말았으면 싶다(그만두고 싶다)', '무사하였으면 싶다(좋겠다)', '앉고 싶다(앉았으면 좋겠다)', '잇고 싶다(이었으면 좋겠다)', '삼고 싶다(삼았으면 좋겠다)'로 해석됨으로써 '願望'의 의미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세기 이후에서 근대국어 시기에 적잖이 볼 수 있는 '-고라쟈'는 어떻게 형성된 어미일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고쟈(<고져)'와 관련시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고라쟈'를 '-고쟈'의 변형인 것으로 보거나 '-고라'와 '-고쟈'의 복합형 내지는 혼효형이라고 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14] 그러나 의미상으로 '원망'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

14) 이현희(1995: 423)에서 '-고져'와 '-고쟈'가 근대국어 단계에 나타나는 '-고라쟈', '-고라지고' 등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짐을 언급한 바 있고(주 23), 조항범(1998: 195)에서는 '-고라쟈'가 '希求'의 어미 '-고쟈'의 변형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은 분명하지만 위의 예 (15)에서처럼 이 어미가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결어미 '-고쟈'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고쟈'는 상위문의 주체와 하위문의 주체가 일치할 때 쓰이는바 (15ㄴ)의 경우 상위문의 주체는 화자인데 하위문의 주체는 '뒤평딕'을 포함한 '모두'로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쟈'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라쟈'를 연결어미 '-고쟈'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종결어미 '-고라'와 종결어미 '-쟈(<져)'의 복합형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쟈'는 '청유'의 '-쟈'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위의 예들에서의 이 어미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청유'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15ㄴ)과 같은 예에서 '무ᄉᆞᄒᆞ고라쟈'의 주어가 '뒤평딕'을 포함한 삼인칭으로 나타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쟈'를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의 '-쟈'는 원망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이현희(1995)에서 所望을 표현하는 어미구조체로 파악한 '-아져'의 그것이다. 그 형태가 '-고라져'로 나타나지 않고 '-고라쟈'로 나타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6세기 이후 '-어' 계통의 어말어미가 '-아' 계통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15] 이현희(1995)에서는 『석보상절』 권6의 '婆羅門이 닐오ᄃᆡ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 술바써(釋詳6:14b)'에서의 '-아져'가 선어말어미 '-아-'에 청유법 어미 '-쟈'가 결합한 것이라는 기존의 해석에 대해, 향가와 고려가요 및 조선시대의 이두자료에서 나타나는 '-良結(아져)' 등의 형태가 소망 표현과 관련됨을 확인하고 그것이 '-거/어/나지라', '-거/어/나지이다'와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거/어/나져'라고 봄으로써 '-아져'가 소망을 표현하는 종결어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다. 특히 다음의 예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16) 뎌 건너 色옷 닙운 ᄉᆞ룸 얄뭡고도 쟛뮈웨라 쟉은 돌ㄱ다리 넘어 큰 돌ㄱ다리 건너 ᄀᆞ로 쒸여 온다 밥 쒸여온다 어허어허 니 ᄉᆞ랑 ᄉᆞᆷ고라지고 (가

15) 이와 같은 변화는 일반적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6세기 자료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 대단히 많은 예가 보이고 있는 등 이미 16세기부터 그와 같은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곡원류 609)

예 (16)에서 위의 (15ㅁ)의 '삼고라쟈'가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삼고라지고'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어미가 의미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라쟈'의 '-쟈'가 '지'와 관련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라지고'는 '-고라'와 '-아지고'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우리는 '-고라쟈'가 소망 표현의 종결어미 '-아져'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고라'에 대해서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보는 입장과 '請願' 또는 '願望'의 종결어미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에서 그것이 '請願'의 의미와 관련됨을 언급하거나 이로 인해 청자높임법 등급에 있어서도 다소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파악함으로써 '-고라'가 단순한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최근의 이승희(2004)에서는 '-고라'가 기원적으로 화자의 祈願, 發願을 나타내는 '祈願文'에서 비롯되어 청자를 상대로 한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게 되고 나아가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부탁하는 청원의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논의를 펴기도 하였다.[17] 따라서 '-고라쟈'는 '청원'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고라'와 '소망'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아쟈(<아져)'가 결합된 복합형으로 소망을 강하게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한다.[18]

5) '듯 시브-' 구성의 발달

현대국어에서 '싶다'는 의존명사 '듯', '성'을 선행 요소로 취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구성에 대한 문법적 해석에는 이견이 있으나[19] 그것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보는 듯하

16) '-아지고'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형태인지는 다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17) '-고라'와 관련한 논의들은 이승희(20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18) 종결형이 중복되어 통합되는 것이 국어에서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나'에서 보듯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9) '듯싶다', '성싶다'의 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체를 보조용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다. 이 경우의 '추측'의 의미 역시 '싶-'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의존명사 '듯'과 '성'의 의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듯'은 '보문의 내용과 유사한 것처럼'의 의미를 가지며, '성'도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싶-'과 통합하여 화자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국어에서도 '듯'의 소급형인 의존명사 'ᄃᆞᆺ'이 존재하였지만 '식브-(>시브-)'의 선행 성분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20] 그러다가 18세기 들어 현대어적인 'ᄃᆞᆺ(>듯) 시브-'의 구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ㄱ. 약방뎨됴의 알왼 바ᄂᆞᆫ 신이 텽형ᄒᆞᆫ ᄃᆞᆺ 시브오니 신이 ᄌᆞ연히 의심이 나 그러ᄒᆞ미오 (천의소감언해 4:42b)
ㄴ. ᄒᆞᆫ 졈은이 잇더니 이제 여긔 업스니 나간 듯 시부다 (청어노걸대 5:5b)
ㄷ. 아드님겨오셔ᄂᆞᆫ ᄒᆞᆫ 번 뵈옵ᄂᆞᆫ 것도 조심ᄒᆞ시며 공구ᄒᆞ시미 무ᄉᆞᆫ 큰 일이나 지니시ᄂᆞᆫ ᄃᆞᆺ 시버 (한중록 110)

위 (17)의 예에서 'ᄃᆞᆺ 시브-' 구성은 모두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성'의 경우는 역사적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구성인 듯하다.

언으로 처리하는 입장이 첫 번째로 이는 최현배(1932)에서 시작되어 학교문법을 거쳐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등의 현행 국어사전들에서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입장이다. 둘째는 의존명사와 '싶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보는 입장으로 고영근(1970)과 왕문용(1984)를 비롯하여 임동훈(1991)이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동훈(1991: 20)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조용언이 관형절에 후행할 수 없다는 점과 보조용언은 보통 그 선행 성분에 특수조사가 부착되는데 반해 이들은 그 내부에 특수조사가 부착된다는 점을 들어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 역시 후자의 입장에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않기로 한다.

20) 다만 '식브-'와 의미와 통사에 있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너기-'의 경우 'ᄃᆞᆺ'이 선행한 예를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된다.
巫峽ᄋᆞᆯ 믄득 華嶽 보ᄂᆞᆫ ᄃᆞᆺ 너기며 蜀江ᄋᆞᆯ 오히려 黃河 보ᄂᆞᆫ ᄃᆞᆺ ᄒᆞ노라 (두시언해 3:37b)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6) 축약형 '-고프-'와 문법화된 형태 '-다시피'의 성립

'싶다'와 관련하여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그것이 선행 형식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극도의 축약형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고 싶-' 구성이 축약되어 마치 접미사처럼 사용되는 '-고프-'가 바로 그것이다. 국어에서 동사구 구성에서의 축약 현상은 '-지 않-'과 같은 부정 구성이 '-잖-'으로 되는 경우 외에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싶다'가 이와 같은 축약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21] 이는 '싶다'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강한 어휘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앞에 통합되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다분히 의존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 싶다' 구성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 단위로 인식되면서 '-고프-' 축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에서 '-고프-' 형태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18)ㄱ. 네 願ᄃᆡ로 ᄒᆞ야 줌아 ᄒᆞ고푼 것 다 일너라 (특별회심곡 악부)
ㄴ. 어어 내 思郞 삼고파지고 네 父母 너 길너 내올제 날만 괴려 ᄒᆞ돗다 (악학습령 87a)
ㄷ. 돍의 알을 ᄆᆞᆫᄃᆞ라 먹고ᄑᆞ나 그 알의 싱력은 ᄐᆡ와 줄 수 업기에 (경향보감 1:18)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프-'는 시기적으로 거의 현대국어에 이르러서야 문헌에서 확인된다. (18)에서 'ᄒᆞ고 싶-', '삼고 싶-', '먹고 싶-' 구성은 각각 'ᄒᆞ고프-', '삼고프-', '먹고프-'로 나타나고 있다.[22]

축약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싶다'와 관련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형식은 '-다시피'이다. 이는 '-다 싶 +이' 구성이 문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는 것과 같이(-는 것에 가깝게)' 또는 '-는 바와 같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로

21) 역사적으로 '-어 잇-'의 구 구성이 과거 시제의 '-었-'으로 이어진 것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22) 이와 같은 '-고프-' 축약이 모든 환경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한데 공교롭게도 위의 예들은 모두 선행 동사가 단음절인 경우이다. 이 밖에도 선행 동사의 어휘적 성격이나 후행어미의 종류도 축약형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다루어진다. ‘그는 뛰다시피 걸었다’와 같은 예가 전자에 해당하고 ‘다 아시다시피 … ’,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 ’와 같은 예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 ‘-다시피’ 앞에는 동사만이 통합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뛰다’, ‘울다’ 등과 같이 동작성이 강한 동사가 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 따위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부사형 어미 ‘-게’가 연결된 ‘-다 싶게’, ‘-나 싶게’ 등의 구성도 존재하지만 그 의미와 문법적 성격이 ‘-다시피’와 다르다. ‘뛰다시피’는 가능하지만 ‘*뛰다 싶게’는 가능하지 않고 ‘뛴다 싶게’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확인된다. 다음 예에서 연결어미화한 ‘-다시피’를 확인할 수 있다.

(19) 이닐곱 사ᄅᆞᆷ들이 미국 와셔 태셔 각국 학문을 ᄇᆡ호고져 ᄒᆞ야 도망질 ᄒᆞ야 와승돈으로 돈 ᄒᆞᆫ푼 업시 빌어먹다시피 ᄒᆞ고 와셔 (독립신문)

개화기 자료에 나타나는 위의 예는 ‘빌어먹는 것과 같이’의 의미를 가져 어떤 동작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적인 ‘-다시피’의 시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본고는 ‘싶다’ 구문의 형태·통사적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싶다’ 구문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법적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세국어 ‘식브다’ 구문의 유형은 현대국어의 ‘싶다’ 구문만큼 다양하지 않다. 중세국어에도 현대국어 ‘듯’의 소급형인 ‘ᄃᆞᆺ’이 있었으나 ‘ᄃᆞᆺ 식브다’와 같은 의존명사 통합 구성은 중세에는 보이지 않고 근대에 가서야 나타난다. 또한 종결어미 통합형의 경우 현대국어와는 달리 청유형, 명령형 어미가 통합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중세국어의 ‘식브다’ 구문은 현대국어에 비해 보문의 형식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종결어미 통합형의 경우 간접화법적인 성격을 가진 보문만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보문의 형식이 다양해져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화용론적인 조건만 충족되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면 문체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결어미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망'을 표현하는 '-고져 식브-' 구성의 '-고져'가 '-고'로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이며 18세기가 되면 이 환경에서 '-고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고'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근대국어 이후 보조 용언 구성에서 선행 용언의 어미가 '-어'나 '-고'로 통일되는 것에 유추되어 소망 표현의 형태가 중복된 어미 '-고져'에서 잉여적 요소인 '져'가 탈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상위문의 주체(소망주)와 하위문의 주체(행위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원망 표현은 중세국어에는 그 예가 없지만 '-과뎌 식브-'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근대국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 이후 연결어미 '-과뎌'의 소멸과 함께 '-으면 싶-' 구성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심리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브다'는 다른 심리형용사와 같이 '-어ᄒᆞ다'가 결합된 동사 구성을 17세기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현대국어와는 달리 '-고 싶다' 구성이 아닌 '-ㄹ가 식브-', 'ᄃᆞᆺ 시브-' 구성에 '-어ᄒᆞ다'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른바 '격 교체'의 예가 18세기와 19세기의 사이에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한편 원망의 '식브-'와 관련하여 16세기 언간 자료에 '-고라쟈 식브-' 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고라쟈'가 '-고져'와 관련되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청원 표현의 종결어미 '-고라'와 소망 표현의 종결어미 '-아져'가 결합된 복합형으로 소망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싶다'와 관련하여 또 하나 흥미로운 형태인 '-고프-'와 '-다시피'의 등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고 싶-'의 축약형 '-고프-'는 '싶다'의 의존적 성격과 '-고 싶다' 구성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 단위로 인식되면서 축약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았고, '-다시피'는 '-다 싶+이'구성이 문법화한 형태로서 '-는 것과 같이(-는 것에 가깝게)' 또는 '-는 바와 같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형태·통사적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싶다' 구문의 사적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았는데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개별적 사실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싶다' 구문의 변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외했던 '싶다' 구문의 의미와 그 통시적 변천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필자: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주제어 : 보조 용언, 補文, 願望, 史的 變遷

투고일(2005. 4. 21),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6. 10)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참 고 문 헌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형식명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6-1.

김선웅(1996), 「한국어 주격 목적어 연구」, 『언어』21-1·2.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희(1989), 「목적어 올리기 구문」, 『배달말』14.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흥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특성」, 『관악어문연구』8.

_____(1988), 『현대 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서정수(1978), 「국어의 보조동사 연구」, 『언어』3-2.

손세모돌(1995), 「'-고 싶다'의 의미 정립 과정」, 『국어학』26.

_____(1996),『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3), 「'-고 싶다' 구문의 격 교체」, 『국어학』41.

왕문용(1984), 「부사성 불완전명사고」, 『국어교육』49-50.

이기종(2000), 「{듯하다}, {듯싶다}, {성싶다}의 의미 차이」, 『한국언어문학』44.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23.

이승희(2004), 「'-고라'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일고찰」, 형태론 하반기 연구발표회 발표요지문.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5), 「중세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과 관련한 몇 문제」,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3.
_____(1988),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24-3.
_____(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_____(1995), 「'-아져'와 '-良結'」,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경준(1998), 「-어 하(ᄒᆞ)-'의 통합 현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차현실(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구조」, 『언어』9-2.
최현배(1937/1991), 『우리말본』, 정음사.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Abstract>

A Study on Diachronic Changes of "sipda" Construction

Lee, Yeong-gyeong *

This paper is aim to study the aspect of morpho-syntactic changes of 'sipda' construction diachronically. The type of complement of 'sikbeuda' construction was not various in Middle Korean by contrast with Modern Korean. A '-gojeo sikbeu-' construction to have a meaning 'desire' was changed to '-go sikbeu-' construction after the mid-17th century. A '-eumyeon sibeu-' construction appears upon 19th century and in all probability, the formation of this would be related to a conjunctive ending '-gwadyeo'. We can find a very special construction '-goraja sikbeu-' on Korean letters of 16th century, and in my opinion it is proper that the ending '-goraja' is a sentence-final ending to have a meaning 'desire', not conjunctive ending. A 'd^t sibeu-' construction being combined with a defective noun 'd^t' appears after 18th century and a contracted form '-gopeu-' and a grammaticalized form '-dasipi-' show up more later than 19th century

Key Words : auxiliary verb, complement, desire, diachronical changes

* Senior Lecturer, Center for Gen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